메트로 2013년 9월 26일 목요일 제2820호 www.metrobusan.co.kr

테러범 사과 받은 네살배기

"14승 류현진 PS 3선발"

기초연금 역차별 '날벼락'…배신당한 베이비부머

정부 개정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길어질 때마다 1만원씩 삭감'…장기 가입자 반발 거셀듯

내년 7월부터 소득 기준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관련법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재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1명 기준 83만원, 부부는 133만원 미만이 기초연금 대상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라면 새 기초연금 대상에도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보장하고 최대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개념)에 비례해(2/3%) 기초연금을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일 때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가입 12년 이상부터는 액수가 1만원씩 깎이면서 가입 20년 이상부터는 10만원만 받게 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 명은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이라는 대선 공약과 달라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출범 당시부터 연금을 부어온 베이비붐 세대 등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거세다. /울산 기자

"내년엔 무상보육 말라는 건가"

정부, 분담률 지자체 요구 못미치는 10%P만 올려
전국 시도지사 "재정부담 떠넘기나" 일제히 반발

"내년에는 무상보육이 더 어려워진다."

박원순(57) 서울시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25일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이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이 언급한 대목은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이다.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 보조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10%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다.

영유아 보육 국고 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국고 보조율이 10%포인트 오르면, 모두 7조5000억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 부담은 현행 3조7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부담은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박 시장은 "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게임 소재가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시작했고 정부가 기준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저출산 문제를 들어 ... 있음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고보조율별 서울시 무상보육 추가 부담액

기준보조율	서울	서울(영유아보육법 개정시)	서울(영유아보육법 개정)
국고보조율	20%	30%	40%
추가 부담액	4422	3767	2092

정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우리의 주요 요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협의회 측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포인트 인상해달라고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전책이 되려면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가 아닌 11%포인트 인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상준기자 ssj@metroseoul.co.kr

북적한 여대 채용박람회장 25일 '2013 여성인재 채용박람회'가 열린 서울 노원구 삼육로 덕성여자대학교 하나누리관이 취업 면접을 보려는 학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뉴시스

"조국을 위해 – 절필! 절필!" 국외 영주권 취득 등으로 병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 100여 명이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높격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벨트 풀어 첨단산단

대도시 주변에 내년 3곳-2015년 6곳 조성키로

대도시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 활성화 대책과 농수산 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 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 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 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육성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첨단산단은 현재 11곳이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첨단산단의 용도 지역을 기존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5000억원의 투자 및 3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용도별로 분리됐던 산업 시설·공공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로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 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 체계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소녀는 소녀로 내버려두자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프랑스에서 어린 소녀들의 미인대회인 '미니 미스'가 사라지게 됐다. 아동의 상업화와 성적 대상화 반대 운동이 확산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16세 미만 소녀의 미인대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출한 샹탈 주아노 의원은 "어린 소녀들이 외모로만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동심 지키기' 운동은 2010년 패션잡지 보그에 등장한 소녀의 섹시 화보가 도화선이 됐다. 당시 10세였던 티렌느 블롱도는 짙은 화장을 하고 호피무늬 베개에 누운 채 관능적인 포즈를 취해 논란을 빚었다.

어린아이들은 눈이 크든 작든, 코가 높든 낮든, 얼굴 생김새 그대로 귀엽고 예쁘다. 해맑은 눈과 때묻지 않은 표정, 거침없는 솔직함이 매력 그 자체다. 이런 동심에 미인의 잣대를 들이대며 순위를 매겨 '공주님'을 선발하고,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뒤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는 외모에 대한 칭찬과 평가,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예쁜 어린이' 이미지는 아이들을 외모지상주의자로 만들기 쉽다. 프랑스의 어린이 미인대회 금지 법안이 어린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심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나서서 망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창군 첫 해군출신 합참의장 탄생

최윤희 해군총장 내정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참모총장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발탁됐다.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군 수뇌부 인사에서 최윤희(해사 31기·사진) 해군총장이 합참의장에 내정됐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권오성(육사 34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군참모총장에는 황기철(해사 32기) 해군사관학교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박선우(육사 35기) 합참작전본부장, 1군사령관에는 신현돈(육사 35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임명됐다. 또 이영주(해사 35기)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이 발탁됐다.

국방부는 "정승조 합참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 지원에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며 "대상자들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는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 5전단장, 해군참모차장을 거쳐 2011년부터 해군참모총장을 맡아오면서 정직 및 조직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비육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김민준기자 mjkim@

학교내 학생 성범죄 7월까지만 505명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이 저지른 성 관련 사건이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 발생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5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8명은 전학이나 퇴학 등 처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859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2010년 293명, 2011년 414명, 2012년 43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은 2010년 1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65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68명으로 지난해 연간 징계 학생 수를 뛰어넘었다.

/서승리기자 [illegible]@

택시 미터기 조작 원천 차단

연말까지 디지털계기 설치

택시요금 시비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인위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12월까지 모든 택시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작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미터기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시간대별 주행속도, 거리, 엔진회전수, GPS 위치정보, 장시간 운행 여부 등 모든 운행 정보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심야 할증도 기존 미터기는 택시기사가 할증 버튼을 직접 눌러야 했지만, 이 장치는 자동으로 작동된다.

서울시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안전운행 모니터링, 안심귀가, 분실물 찾기 등 서비스 개선과 택시요금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순리기자

가장 아름다운 순간 25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교정에서 졸업을 앞둔 여학생들이 장미꽃 포즈로 졸업앨범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자살인' 차남부인도 가담

인천 모자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차남 정모(29)씨 외에 부인 김모(29)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가 어머니 김모(58)씨와 형(32)을 살해하고 지난달 14~15일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시신을 유기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씨는 시신 유기 당시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살해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으로부터 회해 여행을 가자는 연락이 와 따라나섰을 뿐"이라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시신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남편이 유기한 것 같아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자살, ★들에게 물어봐

자살률 2006년 이후 첫 감소…"스스로 목숨 끊은 유명인 거의 없었기 때문"

경제난과 사회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늘어나던 자살 사망자 수가 2006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들어섰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한 고의적 자해(자살)는 1만4160명으로 2011년보다 1746명(11.0%) 감소했다. 하루에 38.8명꼴로 자살한 것으로 전년(43.6명)보다 5명가량 줄어든 셈이다.

남성의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38.2명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고, 여성의 자살 사망률은 18.0명으로 10.4% 하락했다.

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남성: 24.6, 32.4, 29.5, 37.4, 41.4, 43.3, 38.2
여성: 11.1, 14.6, 14.1, 16.7, 21.0, 20.1, 18.0
2000년,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자료: 통계청 / 연합뉴스

이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모방 자살이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유명인이 자살하면 직후 몇 두 달간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2012년에는 유명인 자살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자살률은 80대 이상이 104.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73.1명, 60대 42.4명, 50대 35.3명, 40대 30.9명, 30대 27.3명, 20대 19.5명, 10대 5.1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26만7221명으로 사망 원인 1위는 27.6%를 차지한 악성 신생물(암)이었다. 2위는 심장질환(9.9%), 3위는 뇌혈관질환(9.6%)으로 이들 3대 원인은 전체 사인의 47.1%에 달했다. /이선은기자 sdk.m@metroseoul.co.kr

공연장 갖춘 사회적 기업 울산 중구에 11월 생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장을 갖춘 사회적기업 복합매장(판매장)이 11월 초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에 들어선다.

(사)사회적기업연구원(원장 조영복)에 따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모한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스토어 36.5 판매장(복합매장) 조성 지원사업'의 공동 수행기관으로 (사)사회적기업연구원·(주)마인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역에 조성되는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는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을 비롯해 공연장, 교육장, 카페,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돼 사회적기업의 교육 및 네트워킹뿐 아니라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차 마시며 삶을 음미하세요

27일 어울림 문화제 개막… 한·일 도자교류전 행사 풍성

'제9회 부산 국제 차 어울림 문화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한 이번 문화제는 차 시공보전 '추사·초의 백선전', '한·일 도자교류전', 한국전통장기 워문황당 20주년기념 특별전, 도화 김소영 작품전, 바이오니어 퍼포먼스, 한·일 공예대전, 한·일 꽃꽂이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9회째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조선 후기 최고 명인들이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전시하는 '유묵선 추사·초의 백선전'과 '한·일 도자교류전'을 마련해 차와 도자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추사·초의 백선전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1786~1856)는 평생 차를 즐긴 인물이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그의 작품인 '서도', '차선', '난', '세한도', '산수도', '매화' 등 대작들과 초의 작품인 선경(仙境), '자연(茶煙)' 병품, 서간문 등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원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 한·일 도자교류전

21세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도예가들이 부산에 총출동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대표해 김영식, 정점교, 이정판, 김시영, 김경수, 강영준, 이수백 장인(匠人) 등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 백자 8대 명문가의 맥을 잇는 도예가 문산 김영식 장인이 참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 문경시 관음리에서 조선요(朝鮮窯)를 운영하는 그는 8대조 김취정이 240여 년 전 시작한 사기장 일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 부대 행사

문화제 첫날 27일 대극장에서는 차단체인 숙우회에서 차문화 시연 작품 발표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에서는 금당 최규용, 다촌 정상구, 목촌 구혜경, 원광 스님, 응송에 작고하신 병하스님 등을 추모하는 헌다례 및 조선통신사의 차문화를 고증한 '의례'를 재연하고 차문화를 통해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조명한다.

문화회관 중전시실에서는 한·일 공예대전의 일환으로 하카타전통공예관 전통전승공예 전시체험 교류전이 열리고 일본의 전통 인형인 하카타 인형 명인인 카와노 마사아키와 함께 하카타 전통 인형 채색과 일본 전통 의상 체험도 할 수 있다.

/이경원기자 cyclone@metroseoul.co.kr·뉴시스

낙동강 생태탐방선 '뱃고동'

시, 27일까지 시범운항

낙동강 1300리 물길을 트기 위한 생태탐방선이 25일 첫 운항했다.

부산시는 내년 7월 낙동강 뱃길을 잇는 생태탐방선 운항을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을숙도 선착장에서 에코센터 선박탐방선 '무지개보라1호'(27t급)가 시범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탐방선은 을숙도에서 구포, 화명을 거쳐 물금·원동까지 편도 33㎞에 이르는 뱃길을 4시간에 걸쳐 왕복 운항했다. 이번 시범 운항은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총 5차례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뱃길 경로와 주변 볼거리 등 인프라를 조사하고 자전거 동호회, 학생, 가족 이용객 등 다양한 계층의 선호도를 조사한 뒤 10월께 30~50명을 태울 수 있는 20t 규모의 생태탐방선 건조에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생태탐방선을 본격 운항할 계획이다.

이날 첫 운항에는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의원, 어촌계, 환경단체, 문화단체 관계자와 관광해설사 등 40여 명이 승선해 성공적인 운항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자문을 하게 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생태탐방선 사업을 통해 낙동강을 단순한 볼거리만으로서의 관광자원이 아니라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해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관계자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감대 속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양 지자체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뇌파로 움직이는 장난감 25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IT 엑스포 부산'을 찾은 관람객이 뇌파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체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7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수강생 작품전 보고 릴레이 특강 듣고

경성대 평생교육원 마련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을 위해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와 개설 강좌 릴레이 특강 등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성대의 문화·예술 대축제인 용연문화제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솜씨를 한껏 자랑하는 자리로 27일까지는 한국복식전승 작품전시회,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서예와 작품전시회를 선보인다.

특히 한국복식전승 과정은 매년 대한민국 전통 의상 공모대전서 대한민국 한복·침선 문화상품 공모대전 및 전통한복 고증제작전 등에 출전해 대상과 금상을 비롯해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강좌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전시회의 재미를 더한다. /정하균기자 jhk@

신라대 위탁 운영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

신라대는 27일 오후 3시 교내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박태학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외부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산시의 지원으로 위탁 운영하는 '부산강서사상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식약처와 부산시로부터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 단위로 4억~5억여 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강서구와 사상구 관내에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있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하게 된다.

대학 측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사를 파견, 영양 관리와 위생 관리, 위생 및 영양 전문가의 순회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와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표
사장·편집인	김광학
편집국장	조현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자센터	02)721-9800

2002년 5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라00

닥터 Q&A

생리량 갑자기 늘면 자궁근종 의심을

Q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직장검진을 받던 중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임신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수술 흉터가 걱정입니다. 좋은 치료 방법 없을까요?

A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주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30~40대에 많이 발생해, 가임기 여성의 30% 정도가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미혼 여성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궁근종 환자의 절반 정도는 증상이 없으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생리량이 갑자기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골반과 하복부 통증, 생리통, 생리과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궁 출혈, 배뇨장애, 빈뇨, 심한 변비, 성교통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없던 생리통이 생겼다거나 출혈 및 하복부가 묵직하며 불쾌감이 느껴지는 경우 신속히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종이 크거나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 최대한 자궁을 보존하면서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을 선호합니다.

특히 배꼽을 통해 약 2㎝가량만 절개해 근종을 제거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궁근종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양레포츠 새시대 연다

해운대 '센텀마리나파크' 내달 2일 준공 · 누구나 쉽게 노보트·카약 등 즐겨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해양레포츠 및 마리나시티 시대의 개막의 장이 열려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인 센텀마리나파크(Centum Marina Park)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랜드마크, 해양레포츠·해상 관광의 중심 허브를 꿈꾸며 첫 삽을 뜬 지 3년 만인 오는 2일 준공식을 갖는다.

이는 2009년 해양레저 특화사업자 공고 이래 해양레포츠, 마리나시티를 꿈꾸는 해운대구형 해상 영상 컨벤션 특구사업의 첫 준공사업이기에 큰 의미를 담는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수영강 하류 APEC나루공원 일대에 위치한 센텀마리나파크는 계류장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손쉽게 노보트, 서프바이크, 카약, 카누를 비롯한 8종의 다양한 무동력 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으며 샤워실, 주차장, 편의점,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러한 시설을 토대로 야외 공연, 야외 웨딩, 마리나 컨벤션,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겸해 여름철에만 국한되었던 해양레저 및 레포츠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오픈 준비를 거쳐 올해 안에 편의시설 및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센텀마리나파크 김덕환 회장은 "선수·마니아가 아니면 즐기기 힘들고 쳐다보았던 해양레포츠를 어린아이 등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마리나 특징"이라며 "해양레포츠 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센텀마리나파크는 해양레포츠와 해양레저를 잇는 해상 관광사업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 부산 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마리나시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허브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익준 기자 @metroseoul.co.kr

모든 학교 CCTV 고화질로

시교육청 2016년까지 개선

부산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관내 전 학교의 폐쇄회로(CCTV)를 고화질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629곳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7860대(교당 12.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사람의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가진 CCTV는 총 614대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가 전체 92.1%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학교 내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에 설치된 전체 CCTV 30% 정도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200만 화소 권장)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60%, 2015년 90%, 2016년까지 100% 고화질로 개선할 방침이다.

학교별로는 주요 진입 동선(주 출입구), 사각지대(위험 및 우범 지역) 등 필수 감시 지역을 관제할 수 있도록 4곳 정도가 고화질 CCTV로 교체를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실정에 맞게 고화질 CCTV 교체를 추진하되 관련 기술 발전 추이를 감안해 향후 CCTV 추가 교체 시 호환성(확장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또 CCTV 화소 개선과 관제 모니터링을 동시에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구철조 장관 지난 24일 경남 산청엑스포 전경대 아래와 허준순례길 중 정사장 전역에 피어난 구철조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산청군 엑스포조직위 제공

청소년창의인재센터 개소

부산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40분 대학 제11공학관(조선관)에서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후원하는 창의센터는 '창의융합 지식을 갖춘 착한 미래 공학도 양성'을 목표로 동남권 청소년들의 이공계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이곳은 앞으로 5년간 '프로젝트 헬리우스(일곱빛깔무지개)'의 7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공학 체험 및 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래 공학교실 ▲K-12로봇캠프 ▲착한기술교실 ▲기술봉사캠프 개최 ▲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심사 및 대학 연계 사례 집 제작 ▲기술 아카데미 멘토링 등이 있다.

특히 내달 19일부터 미래 공학교실과 착한기술교실을 연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4주간 부산대 공과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공학 개념 학습 및 다양한 공학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 학생들은 겨울방학 중에 K-12로봇캠프, 기술봉사캠프에 참가해 그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로봇을 제작하거나 발명품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미래 공학교실과 착한기술교실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23일부터 각 학교 담당교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51)510-3172~3

온 종합병원 문화마당 '인기'

부산 온 종합병원이 문화마당을 펼쳐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재단은 각종 공연과 노래교실,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해 매번 200석 규모의 자리를 메울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병원은 또 올해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특별 공연 기관으로 선정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매달 무료 문화 공연을 열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에는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음악회'가 개최돼 박수를 받았다.

올 들어 이곳에서는 라메르오케스트라, 메소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극단 이야기의 좀 전엔 그림자극, 극단 디아코노스의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인 '부산건강대학'과 함께 다양한 건강교실, 문화교실을 열고 한생활 노래교실, 초록체능과 함께하는 학부모 인문학 교실, 시민 무료 건강 강좌 등을 개최하는 지역 문화 선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온 종합병원은 편리한 교통 여건을 살려 공연장이나 강의 장소가 필요한 단체한테 이곳 대강당을 무료로 빌려준다.

영·유아 가족 걷기 대회

부산시는 제4회 영·유아 가족걷기 및 그림그리기대회를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해운대 APEC나루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테마로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내 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등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영·유아 자녀와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이 행사는 번개맨과 덩동샌 친구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 녹색 환경살리기 유용미생물(EM) 흙공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루공원 산책로를 따라 30분간 걷기대회가 열린다.

또 풍선을 나눠주고 페이스페인팅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는 '행복한 우리 가족', '예쁜 내 동생' 이라는 주제로 그림그리기대회를 펼친다. 이 밖에도 지도강사와 함께 30여 종의 악기로 난타 체험하기, 가면 요술풍선 바람개비 EM 흙공 만들기와 천연염색 꽃물 들이기 등 다양한 체험 놀이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가을을 만끽하면서 가족에 대한 참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테러범 꿀린 네 살배기

영국인 소년, 케냐 쇼핑몰 인질극 현장서 "나쁜 사람" 큰소리…사과 받고 탈출 성공

웃음 터진 클린턴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의 딸 첼시 클린턴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2013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석,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와 포옹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은 미국 언론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케냐 나이로비의 쇼핑몰 테러 현장에서 네 살배기 영국 꼬마가 괴한들에게 맞서 탈출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영국 버크셔 출신으로 나이로비에 살고 있는 엘리어트 프라이어.

엘리어트는 엄마, 누나와 함께 주말에 쇼핑을 나왔다가 인질로 붙잡혔다. 그의 어머니 엄비(35)는 현장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무장 괴한을 향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를 풀어주세요"라고 외친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며 놀라움을 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쇼핑몰을 점거한 테러범들은 인질들에게 "살아있는 아이가 있으면 데리고 나가도 좋다"고 했고, 엘리어트의 어머니는 용기 있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때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다친 몸을 추스르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도중에 엘리어트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풀어줘"라고 큰소리로 외친 것. 뜻밖에도 테러범들은 어린 소년의 '꾸짖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용서해줘. 우리는 괴물이 아니야"라며 사과를 구했다. 그러면서 엘리어트와 누나에게 초콜릿까지 건넸다.

테러범은 또한 "케냐인과 미국인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지 영국인은 우리 공격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엄비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인 여성 1명을 포함해 최소 62명이 목숨을 잃었다.

테러범에게 받은 초콜릿을 손에 쥔 엘리어트(왼쪽)와 엘리어트의 누나 /인디펜던트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또 불거진 푸틴-카바예바 결혼설

리듬체조 선수 출신 의원 크렘린궁 "소설" 즉각부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혼설이 또다시 불거지자 크렘린궁이 이를 공식 부인했다.

25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공보실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통령 재혼설은 헛소문"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재혼설은 지난 21일 올라온 트위터 메시지로 인해 급속도로 퍼졌다. 메시지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수도원에서 체조선수 출신 알리나 카바예바(30) 하원의원과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류드밀라 여사와의 이혼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조선미기자

파키스탄 강진 수백명 사망

24일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최소 2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발루치스탄주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가옥도 대거 붕괴됐다.

현지 구조대는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정당이가 마치 섬처럼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기도 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높이 9m에 너비 100m인 지진 섬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믿고 맡겼다가 당황한 적 있으시죠?
자동차를 정비할 때도 콕 찍어
"순정부품"이라고 얘기하세요!
KIA
현대모비스 순정부품이란?
HYUNDAI
MOBIS

market index <25일>

- 코스피 1998.06 (-8.04)
- 코스닥 527.27 (-0.02)
- 금리 2.84 (+0.02)
- 환율 1076.00 (+2.00)

강남 전세 합하면 서울APT 절반값

서초·송파 등 3구 평균 전셋값 4억4000여만원 · 64만 가구 사고도 남아

강남의 핵심 생활권인 강남·서초·송파의 전셋값이면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 절반 이상을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육, 주 생활권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실주거 매물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2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시세 기준으로 강남3구의 평균 전세가는 4억42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들어선 아파트 총 119만7762가구(주상복합 포함)의 약 53%인 64만518가구의 매매가를 웃도는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전세 선호 심리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끼쳤다.

지역별로 강남3구의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11만2332가구)였다. 이어 도봉구(5만3440가구), 구로구(4만6916가구), 강서구(4만3240가구), 성북구(4만2647가구)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전세에서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시내 전셋값도 많이 오른 상태인 반면 매매가는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전세 재계약을 앞둔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평형을 줄이거나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지역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강남 재건축 물량을 중심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택 구입 시기로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현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윈도8 탑재한 외콤 태블릿 PC
태블릿 전문 기업 와콤은 25일 윈도8 기반의 태블릿PC 신티크 컴패니언을 선보이고 있다. 와콤은 모바일 신티크 컴패니언 라인을 통해 기존 PC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모바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택대출금리 최저 연 3.4%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최저 연 3.4%까지 떨어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씨티은행(3.51%), 기업은행(3.57%), 국민은행(3.62%) 등 3% 중반 금리가 적지 않다. 대출금리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1~3등급의 경우 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에 평균 3.46%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illegible]기자

BMW 뉴5 '질주 시동'
BMW 코리아는 25일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뉴 5시리즈(왼쪽)와 뉴 그란투리스모를 공식 출시했다. 가격은 뉴 5시리즈가 6230만원에서 1억2130만원, 뉴 그란투리스모는 7150만원에서 8440만원. /연합뉴스

'체크 홀릭' 40대男

농협 카드소비군 분석

체크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군은 4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체크카드 회원 1263만명의 올해 상반기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40대의 사용액이 2조1000억원(전체의 25.4%)으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연령대별 사용액은 30대 1조9000억원(23.1%), 20대 1조9000억원(22.8%), 50대 1조4000억원(16.2%) 순이다. 남성 회원의 사용액이 4조8000억원으로 여성 회원의 3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유현희기자

'유료방송법' 뭐길래…KT 발끈

가입자수 점유율 IPTV만 제한서 위성방송도 합산
그간 규제 없던 '통합 플랫폼' OTS 영업 걸림돌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정치권에서 IPTV와 위성방송을 합산해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유료방송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KT 광화문 사옥 6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산 규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송 산업의 정체 및 후퇴로 소비자 편익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의 경우 케이블 TV만 적용받아 방송사업자(SO)에 대해 해당 시장 가구 수(약 1500만명)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 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 방송 시장(약 2400만 명)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KT의 IPTV 가입자는 최대 800만 명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 TV 업계는 KT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다. OTS는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결합한 서비스로 이 OTS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볼 것이냐 위성방송 가입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올 7월 말 현재 OTS 가입자는 207만 명, 스카이라이프는 197만 명, KT IPTV 가입자는 249만 명이다. OTS를 중심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어 OTS를 어떤 플랫폼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문 사장은 "방송 플랫폼을 합산해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역설했다.

반면 케이블 TV 업계는 "합산 규제는 한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치우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KT계열 가입자는 643만 명으로 케이블 TV 및 IPTV 2~5위 4개 사업자를 합친 가입자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이미 독과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갤노트3·갤럭시기어 한국 등 58국 출시돼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와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기어'가 25일 한국 등 58개국에 동시 출시됐다.

갤럭시노트3는 5.7인치(144.3㎜) 화면에 풀HD 슈퍼 아몰레드 화면과 3기가바이트(GB) 램을 탑재했다.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를 지원해 이론상 최대 150Mbps(초당 메가비트)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출고가는 106만7000원이다.

갤럭시기어는 1.63인치(41.4㎜) 화면과 19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 손목시계다.

음성인식 기능인 'S보이스'를 활용해 음성으로 간편하게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고, 갤럭시노트3와 연계해 메시지·전자우편(e메일)이 오면 알려주는 기능도 한다. 가격은 39만6000원.

/박성훈기자

원심분리형 음식물처리기 '스핀즈' 25일 오전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모델들이 스핀즈이노베이션의 원심분리형 음식물처리기 스핀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팬택 이준우 사장 승진

● 이준우 팬택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팬택은 24일 오후 이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투톱 체제'로 팬택을 이끌어온 박병엽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사측이 이 부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포항공대 대학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팬택에 입사해 중앙연구소장, 기술전략본부장, 사업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김민준기자

현대·기아차 66만대 리콜

●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등 15종 66만251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이들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정속주행장치(크루즈 컨트롤)와 차체자세제어장치(차량이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바로잡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박성훈기자

네이트 뉴스 댓글 실명제

● SK커뮤니케이션즈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네이트 뉴스에 자율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SK컴즈는 이용자 동의에 따라 뉴스 댓글에 실명을 드러내도록 하는 '뉴스 댓글 내 이름 표시제'를 개인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동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댓글을 달기 위해 로그인할 시 아이디 일부 숨김 또는 전체 공개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뜨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황윤희기자

글라스 하프 연주따라 흔들림 없이 찰칵!

캐논 EOS 70D 압도적 AF성능 담은 광고 화제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의 신제품 DSLR 카메라 EOS 70D의 새로운 TV 광고 캠페인 '또 한 번 캐논이 캐논을 넘다'가 최근 방영을 시작하면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 한 번 캐논이 캐논을 넘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광고는 글라스하프 연주 영상을 통해 EOS 70D의 빠르고 부드러운 자동 초점(AF) 성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광고는 수십 개의 와인 글라스를 앞에 둔 남성이 글라스를 문지르거나 튕기는 기술을 통해 왈츠를 연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연주자의 손끝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장면을 통해 신기술 듀얼 픽셀(Dual Pixel) CMOS AF를 탑재한 EOS 70D의 압도적인 AF 성능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한편 이번 광고는 기존 카메라 광고와는 다르게 카메라를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분 동안의 아름다운 글라스하프 연주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카메라 광고가 아닌 마치 한 편의 웅장한 클래식 공연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일반적으로 15초, 30초 중심으로 노출되는 국내 TV 광고와는 다르게 과감히 1분이라는 긴 시간의 광고를 진행해 화제다. 영상 풀버전은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 공식 유튜브 채널(http://youtu.be/PIQbWaPAcMJ)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계절도 나도 옷 갈아입네

롯데마트 가을의류대전·'이마트 SPA' 데이즈 니트·다운점퍼 눈길

뚝 떨어진 기온에 겨울옷 판촉이 본격 시작됐다.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가을옷 할인 판매 행사도 대형마트에서 열린다.

롯데마트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104개 점에서 '가을 의류 대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스웨터와 바지, 셔츠 등 가을용 의류 20만 점을 최대 50% 싸게 판다.

색상이 15가지로 다양한 여성 컬러 스웨터는 1만원, 여성 컬러 레깅스 팬츠는 시중가보다 30%가량 저렴한 1만5000원에 각각 내놓는다.

이마트는 SPA 브랜드 유니클로에 도전장을 냈다. 자체 SPA 브랜드 데이즈를 통해 100% 캐시미어 소재 니트·카디건과 경량 다운점퍼를 26일부터 판매한다. 중국 네이멍구 닝샤에서 원자재를 매입해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 가격을 낮췄다. 캐시미어 니트는 5만9900원, 카디건은 6만9900원으로 시중 SPA 의류 브랜드 제품보다 최대 39% 저렴하다고 이마트는 밝혔다.

프랑스산 다운을 사용한 경량 다운점퍼는 5만9900원에, 베스트(조끼)는 3만990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 측은 겨울 상품 판촉을 통해 데이즈를 국내 SPA 1위 브랜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2012년 기준 데이즈 매출은 2642억원으로 유니클로에 이어 국내 2위 규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쇼핑호스트 정윤정도 피해자"

'기적의 크림' 논란 관련 GS홈쇼핑 공식사과 표명

최근 다시 불거진 GS홈쇼핑의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기적의 크림)' 논란에 대해 25일 회사 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GS홈쇼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배합 금지 물질인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 사실이 확인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식약처가 발표한 제조번호 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7월 3일부터 해당 제품 구매 고객 전원에게 리콜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치료비 보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들은 모두 118명.

회사 측은 "제조자나 수입사가 아닌 화장품 판매사가 소비자 대상의 리콜을 시행하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소비자를 고려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피부관리실 치료비 등 회사의 기준을 넘어서서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과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화장품을 판매했던 정윤정 쇼핑호스트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식약처도 몰랐던 스테로이드 혼입을 쇼핑호스트 개인이 알 수 없었던 만큼 정씨 또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회사 전체의 책임인 만큼 고객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힐링크림'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개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동안 방송을 쉬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한용수기자

'액티비아 KISS'와 장건강 입맞춤 풀무원다논이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근 출시한 과일토핑 요구르트 '액티비아 키스(KISS)'를 선보이고 있다. 요구르트 위에 붙기 사과, 자몽 등이 올려져 있는 제품으로 요구르트에 섞어 바로 즐길 수 있다. 액티비아 독점 유산균 비피더스 액티레귤라리스가 함유돼 있다.

강강술래서 만날 '…건달들'

홈페이지 신청글 올리면 뮤지컬 표 등 경품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추석 이후 고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 공연과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과 신송식품의 즉석 컵밥(12인), 백세시대의 백두선생오미자'(30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아가씨와 건달들'은 1929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네 명의 청춘남녀가 사랑과 꿈에 꿈은 걸고 벌이는 인생 승부를 코믹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류수영, 김지우, 이하늬 등이 출연한다.

신송식품의 컵 국밥 형태의 즉석국밥 3종은 소고기육개장, 소고기된장국, 북엇국으로 구성됐으며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은 물론 간편한 식사를 즐기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좋다.

'백두선생오미자'는 무공해 유기농 청정지역 백두산에서 재배된 생오미자를 무설탕으로 착즙해 농축한 음료로 양궁과 체조, 리듬체조, 상무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마시고 있다.

이밖에, 캠핑을 즐기는 고객을 위해선 한우 갈빗살로 만든 '찰진한우떡갈비'(1세트)와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2세트)로 구성된 힐링세트 A는 2만6400원(40% 할인), 한우불고기(900g)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힐링세트 B는 3만5000원(30% 할인)에 판매한다.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건전여행
우수여행상품
Quality Certification
문화체육관광부인증

'한 배우 두 영화' 늘고 있다

김해숙 같은 날 개봉 '깡철이' '소원' 동시 출연 · 설경구·라미란도 마찬가지

포스트 한가위 극장가가 '한 배우 두 영화'로 채워진다.

중견 배우 김해숙은 다음달 2일 함께 개봉될 '깡철이'와 '소원'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깡철이'에선 주인공 강철(유아인)의 철없는 엄마 순이를 연기하며, '소원'에선 술 취한 아저씨에게 몹쓸 변을 당한 소원(이레)의 치료를 담당하는 자상한 상담소장 역을 맡아 극과 극의 캐릭터를 오간다.

환갑을 앞둔 나이(58세)의 이 배우가 두 작품에서 주연과 조연으로 동시에 나서는 건 배우층이 얇은 한국 영화계에서도 흔치 않다.

코믹 액션물 '스파이'로 추석 연휴 관객들의 배꼽을 책임졌던 설경구와 라미란은 '소원'으로 나란히 무대를 옮겼다.

설경구는 딸 소원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애쓰는 아빠 동훈 역으로 출연했고, 라미란은 소원 가족을 따뜻이 게 보살피는 영석 엄마 역으로 가세했다.

특히 라미란은 엉뚱한 행동의 여성 요원으로 폭소를 자아냈던 '스파이'에 이어 '소원'에서도 간결 명료한 코믹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 배우가 출연한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되거나 혹은 차례로 공개된 건 이전에도 간혹 있었다. 출중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감초 조연'일수록 잦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 같은 경우가 주·조연을 막론하고 늘어나는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설경구는 지난해 겨울 '타워'를 시작으로 '감시자들'과 '스파이'를 거쳐 '소원'까지 숨돌릴 새 없이 내달리고 있다. '설국열차'의 '관상'에 이어 '변호인'의 올겨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송강호도 마찬가지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후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배급 시기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라며 "배우에겐 다소 곤혹스러울 법도 하지만, 관객들에겐 좋아하는 배우의 출연작을 쉬지 않고 선보인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다"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22화 글 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펴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보르코시건' 시리즈 YES24 리뷰대회 3등 수상작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0.2초.

보르코시건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일즈의 부모는 적으로 만난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0.2초에 불과하다. 진흙에 대고 포하는 자세마저 멋지다 하니 말 다했다. 아랄의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적개심을 가졌던 코델리아 역시 포로로서 동행을 하다 아랄에 대한 자신의 호감을 알아차리고 놀라게 된다.

코델리아와 아랄이 적으로 만나 티격태격 끝에 둘은 연인이 되어 결혼에 이른다.

보르코시건 시리즈 언더기의 이 두 쌍을 탐색하기 위해, 두 사람은 참고 꽃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반려자가 된 것이다. 만약 아랄이 포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무뢰한이었더라면 코델리아는 아랄을 뻔한 바라야인으로 여겼을 것이다. 혹시 코델리아가 국민적 영웅 행세를 하며 베타 식민지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돌았다면, 아랄은 그저 퇴역한 장교로 코델리아는 가짜 국민 영웅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 많은 만약과 혹시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목이 '명예의 조각'이 아니라 '명예의 조각들'인 것도 이 두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두 사람이 내린 명예의 정의는 다르지만, 각자의 명예를 지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두 사람은 몇 바퀴를 돌아도 만날 수밖에 없는 우주적 운명이었을 것이라는 다소 쑥스러운 생각도 해보았다.

방대한 세계관을 가진 보르코시건 시리즈 중 '명예의 조각들'은 이 시리즈의 실질적인 주인공 '마일즈 보르코시건'의 부모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랄은 마일즈의 아버지, 코델리아는 어머니가 된다. 방대한 시리즈에 굳이 부모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듯 해야 했을까 싶겠지만, 봐야 할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우리의 주인공 마일즈 보르코시건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전자책은 www.ridibooks.com(리디북스)에서 제공, 1권 2권의 1부는 무료
-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및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3대 키워드 정체성·관객·실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매해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어느덧 열여덟 살이 됐다. 다음달 3일 18회 개막식을 앞두고 25일 서울 운니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관(58·동서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학장·사진) 집행위원장은 "올해 BIFF는 성인을 눈앞에 두고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년간 영화제를 지켰는데 그래도 긴장이 되나

그렇다. 해를 거듭할수록 외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매회 숙제다. 올해는 영화의전당 3년째라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영화의 전당 활용 방안에 변화가 있나

지난해에는 영화인과 언론인들이 게스트라운지로 썼던 1층 비프힐을 티켓 전용 공간으로 바꿔 일반 관객에게 개방한다. 광장 전체에 파라솔을 설치해 관객들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영화의전당 인근의 2000평 규모의 영화진흥위원회 부지를 관객들의 쉼터로 꾸민다. 1층 실내와 실외 모두 관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로만 채운 셈이다.

-BIFF가 만 18세가 됐다. 성인을 앞두고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

BIFF는 열여덟 살이 되도록 성장통을 앓아왔다. 급성장하다 보니 외형은 컸지만 내실이 약했던 게 사실이다. 올해는 조직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을 확고히 갖추는 등 한결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20주년 때는 진정한 어른이 돼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23일 시작한 임권택 감독 전작전이다. 영화제 개막 일주일 전에 행사를 시작하는 것은 대대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프로그램이 하는 시도를 점차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20주년을 맞는 BIFF는 10일 동안 열리는 게 아니라 365일 내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지난해 영화제는 역대 최다 관객을 불러모았다. 올해는 관객을 흡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

영화제 색깔을 더 분명히 했다. BIFF다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BIFF의 색깔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영화인들의 축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적인 영화제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개·폐막작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들을 보면 올해는 그런 색깔이 두드러진다.

또한 지난해에는 23만 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았는데 관객의 숫자보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세계 영화제 최초로 부탄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택해 화제다

개막작인 '바라: 축복'은 BIFF의 정체성을 대변해줄 작품이다. 개막 추천작으로 보는 순간 다른 작품에 눈길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작품을 기꺼이 우리에게 준 것은 행운이다. 폐막작을 한국의 인디영화('만찬')로 선정한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 정체성 아시아 영화인 축제 걸맞게 색깔 더 분명히 기획
2 관 객 2000평 부지 쉼터 꾸며 · 모든 광장에는 파라솔
3 실 험 개막 앞두고 임권택 전작전 등 마련 '365일 행사'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무삭제 버전 상영이 취소됐다

김 감독이 제한을 거절해 일단 극장 개봉 버전으로 상영하기로 했다. 영화제는 등급 논란에서 자유로운 만큼 앞으로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해 관객들과 대화하고 싶다. 이번에 '뫼비우스'의 오리지널 버전을 상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감독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김 감독이 등급 문제로 많이 시달린 것을 보면 안타깝다. 앞으로 김 감독의 회고전을 연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뫼비우스' 원작을 만날 기회는 있을 거라 기대한다.

-동서대 임권택영화예술대 학장으로 자리를 옮겨 부산에 완전히 터를 잡게 됐는데 생활의 변화는

부산 생활을 한 지 1년이 됐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부산 시민이나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면 지금은 반대다. 이전에는 영화제 일을 하면서 중앙대 교수직을 병행하는 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더 학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 아직은 나를 학자로 대하기보다 영화제로 대하는 느낌이라 조심스럽지만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즐겁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아인드리머) 디자인/김아람

star bag

모델 유지안과 2년째 열애

배우 **김우빈**이 모델 유지안과 2년째 열애 중이다.

25일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양측 소속사 관계자는 "김우빈이 모델로 활동할 때부터 알고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해 2년째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유지안은 176cm의 큰 키와 물륨 있는 몸매의 소유자로 다양한 패션잡지 화보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2차 반성문 "선처해 달라"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 법원에 반성문을 또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23일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 반성문에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씨엔블루와 음원소송 승소

록밴드 **크라잉넛**이 아이돌 그룹 씨엔블루와의 음원 사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편 남성진과 같은 소속사

배우 **김지영**이 남편과 친동생의 소속사와 손을 잡았다.

얼반웍스이엔티는 25일 김지영의 영입 사실을 전하며 "국내의 다양한 작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SBS '런닝맨' '스토리온' '렛미인' 등을 만든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얼반웍스미디어의 자회사다. 김지영의 남편인 남성진과 친동생인 김재한, 배우 임성언 등이 소속돼 있다.

음원천하 버스커독존

2집 9개 수록곡 실시간차트 1~9위 '줄세우기'

돌아온 버스커버스커가 가을 음악 시장을 단숨에 장악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버스커버스커 1집 마무리' 이후 1년3개월 만에 내놓은 2집은 25일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9개의 수록곡은 멜론·엠넷·소리바다·벅스 등 주요 9개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 모두 1~9위에 오르는 이른바 '차트 줄세우기'를 선보였다.

지난해 3월 발표한 1집이 '벚꽃엔딩' '여수 밤바다'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하며 봄을 대표하는 음반으로 화제를 모았다면 2집은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은 곡들이 수록돼 또 한 번 계절을 대표하는 앨범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컬 장범준은 지난 앨범에 이어 수록곡 전체를 작사·작곡·편곡했다. 타이틀곡 '처음엔 사랑이란 게'는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노래한 곡이다. 현악 도입부가 돋보이는 '가을밤', 제지연과 듀엣으로 부른 '그대 없이는', 역동성과 서정성을 균형 있게 분배한 '사랑은 타이밍' 등도 인상적이다.

음원의 인기와 함께 '처음엔 사랑이란 게'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모델 출신 손수편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일본 인기 배우 아오이 유우를 닮은 외모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3일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20일 대구 엑스코, 11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3 버스커버스커 콘서트 등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공연 외에는 앨범 홍보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행보를 또 한 번 이어간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생방 독 됐나…'화신' 결국 폐지

생방송 체제로 바뀐 후 아쉬운 성과에 그친 SBS '화신'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25일 SBS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가을 개편을 맞아 이 프로그램의 폐지가 결정됐다. 이 자리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가 다음달 8일부터 편성될 예정이다.

'화신'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24일 방송에서 화병과 얽힌 방시능 유준 등 일상사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이날 방송 후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는 "시사 프로그램인지 보이는 라디오인지 콘셉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방사능에 대한 MC들의 안일한 생각이 매우 보기 불편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청률 역시 개편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녹화 방송인 10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4.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디스크로 착각' 척추관협착증 아세요?

오래 걸으면 다리 터질듯 아프고 허리 펴도 통증
최근 꼬리뼈내시경레이저 등 비수술 치료 다양

허리가 아프면 사람들은 먼저 허리디스크를 의심한다. 특히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은 허리에 통증이 심하면 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도 하며 허리디스크 수술을 두려워해 병원 방문을 꺼리곤 한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허리디스크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노화로 인한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척추관협착증은 대부분 허리디스크라고 오인할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척추질환이다. 노화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은 50~60대에는 허리디스크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며 허리디스크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세바른병원 강남점의 정성삼 대표원장은 "척추관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면 이것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척추관협착증을 설명했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상당 부분 증상이 유사하지만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힘이 빠지는 것이 대표적인데 잠시 쉬어 쉬면 통증이 덜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허리 외에도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 등 하반신의 저림과 통증이 심하며 허리를 펴면 아프고 앞으로 굽히면 오히려 편해지기도 한다.

◆꼬리뼈로 미세 관 삽입해 30분만에 치료

척추관협착증 치료는 그동안 수술이 대부분이었지만 다행히 최근 수술 없이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이 등장해 간단하게 치료가 이뤄지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시술은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로 꼬리뼈를 통해 내시경이 있는 지름 2mm, 길이 40~50cm의 아주 미세한 관(카테터)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집어넣어 환부를 직접 보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협착, 염증 등의 원인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내시경으로 환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진단이 가능하며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미세한 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걱정을 덜 수 있다. 또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로 진행돼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도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플라즈마감압술도 비수술 척추 치료법 중 하나다. 디스크 내부에 주삿바늘을 넣어 플라즈마광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플라즈마광은 탈출한 디스크 등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융해시켜 정상적인 조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성삼 대표원장은 "시술을 통한 비수술 치료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매우 정밀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llegible] 기자

세바른병원 강남점의 정성삼(왼쪽)·김주현 대표원장

유방암 발병 서구화… 폐경 이후 환자 증가

25일 한국유방암학회는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발간한 '2013 한국 여성 유방암 백서'를 통해 고연령 발병 환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등 유방암 환자 발생 추세가 서구와 비슷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폐경 이후 유방암 환자의 급증으로 국내 유방암 환자는 1996년 3801명에서 2010년 1만6398명으로 늘어나 15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했다.

또 3~40대 젊은 유방암 환자의 발병률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50대 폐경 이후의 유방암 환자 발병률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2010년 50대 환자 발생 비율은 25.7%에서 29.1%로 상승했고 60대 환자 발생 비율도 13%에서 14%로 늘었다.

/[illegible]

구석구석

◆봉화송이축제
- 날짜 9월 27~30일
- 장소 경북 봉화군 봉화읍 체육공원 등

송이의 생태를 관찰하고 직접 캐보고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느껴보세요! 천연의 맛과 향 봉화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인형극 댄스 실용음악 공연, 송이가요제를 비롯해 삼계줄다리기 재현, 공민왕 행자 재현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송이비빔밥 시식 행사, 송이요리 전시 송이 채취 체험, 송이 놀림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백제문화제
- 날짜 9월 28일~10월 6일
- 장소 충남 부여군 구드래 광장 및 공주 일대

백제금동대향로의 세계로 란 주제로 27일 청동산에서의 백제혼불 채화를 전야제로 막을 올린다. 축제는 백제대왕제, 수륙재 등 7종의 제·불전 부여군 프로그램인 백제 역사문화 행렬과 백제사비정도 고유제, 계백장군 출정식 등 백제 역사문화 이벤트와 백 시낭 시연, 해외 예술단 초청 공연 등 8개 분야 44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륵문화제
- 날짜 9월 26~30일
- 장소 충북 충주시 충주세계무술공원

축제는 신라의 악성(樂聖) 우륵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댄스 경연대회와 명현추모제, 갑수석열장, 조선시대 문과 시험 재현, 모듬북 난타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또 사진작가협회전, 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전, 문인화 전시회 등 상설 전시장이 운영되며 민속놀이 경연대회, 청소년 가요제와 꿈나무 미술 휴 빛기 대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열려진다.

횡성한우축제의 가장 큰 즐거움은 원하는 부위를 싸게 구입해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작은 사진: 한우로 푸짐하게 배를 채웠다면 로데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기다린다)

한우 먹고 또 먹고…횡성서 횡재

다음달 2~6일 '횡성한우축제'
명품한우 저렴하게 즐길 기회
불꽃놀이·경축비행·테마목장
볼거리·체험프로그램도 푸짐

우수한 품종의 한우를 저렴하고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축제가 막을 올린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 브랜드 중 하나인 '횡성 한우'를 주제로 하는 맛있는 축제 '2013 횡성한우축제'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강원 횡성군 횡성읍 섬강 둔치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며 가을철 나들이를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줄 횡성한우축제의 진면목과 명품 한우의 참맛을 즐겨보자.

◆명품 횡성 한우를 더 저렴하고 맛있게

횡성 한우는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우시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규모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더욱이 횡성군과 횡성축협이 한우 명품화 사업과 쇠고기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횡성 한우는 국가 인증 브랜드 상표와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으로 명품 브랜드의 반열에 올랐다.

축제에서는 이런 횡성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 우선 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횡성 한우고기 전문점'과 '횡성한우 셀프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점에는 살치살과 꽃등심을 비롯해 등심, 부채살, 차돌박이, 치마살, 채끝살 등 한우의 모든 부위가 마련돼 있으며 셀프 코너에서는 1인당 5000원으로 공기밥과 상추, 쌈장, 된장국 등이 차려지는 기본상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로 맛보기 코너도 빠뜨릴 수 없다. 축제 기간 중 매일 두 번 횡성한우 시식 코너가 열릴 때 맛있는 횡성 한우를 맛보는 것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시식 코너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무료 시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품질 좋은 먹거리로 넉넉한 가을 축제

횡성한우축제에서 맛볼 것은 횡성 한우뿐만이 아니다. 축제장에서는 안흥 찐빵, 횡성 더덕 등 횡성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2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흥 찐빵은 횡성지역의 유명한 먹거리로 횡성에서 나는 순국산 팥을 이용해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축제장에서는 안흥 찐빵 무료 시식이 가능하고 판매 코너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구입하거나 택배로 보낼 수도 있다.

게다가 횡성 특산물인 횡성 한우, 더덕, 쌀, 취나물 등을 대형 비빔 솥에 넣고 밥과 버무리는 대형 비빔밥 역시 축제장을 더욱 맛있게 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다. 대형 비빔밥은 하루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돼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벤트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즐기는 축제

축제는 다양하고 규모 있는 이벤트와 눈길 가는 시설로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사로잡는다. 개막식 축하 공연에 이은 불꽃놀이, 전통 국악 공연, 심수봉 콘서트, 블랙이글 경축 비행, 한우축제 100배 즐기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또 요리전문가 초빙 가족요리 체험, 맨손 송아지 잡기 등의 참여 행사와 함께 송아지와 횡성 한우 테마목장 운영, 한우 유등 전시, 횡성 한우랑 추억 만들기, 어린이 전용 놀이터 운영 등 한층 다양한 즐길거리로 무장했다.

특히 섬강의 풍경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스토랑과 수상 카페는 지난해보다 면적을 2배 이상 확대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10월 2~6일
- 장소 강원 횡성군 횡성읍 섬강 둔치
- 문의 횡성군한우축제추진위원회 033)342-1731~2

청태산 휴양림·참숯 찜질…심신의 군살 '쏙'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횡성 한우로 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횡성에서 맑은 가을을 만끽할 차례다.

◆청태산 자연휴양림서 하룻밤

청태산 자연휴양림은 천연림과 인공림이 잘 조화된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휴양림에서 청태산 정상까지는 6개 등산로를 통해 오를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이용이 가능한 데크로드(길이 800m)가 울창한 잣나무숲 사이로 놓여져 누구나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다. 또 숲속의 집 11동 11실,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숙박시설과 숲속수련장, 야영데크 등이 구비돼 있다.

횡성군의 최고봉인 태기산(1261m) 역시 산세가 웅장하고 주변의 산야를 조망할 수 있어 전망이 으뜸인 명산이다. 능선을 따라 솟지어 선 20기의 풍력발전기 옆으로 개설된 임도가 있어 사동차를 이용해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신비로운 검은 빛 강원 참숯

강원노산 참나무 백탄만을 사용해 숯을 구워내고 있는 강원 참숯가마는 35년 경력의 숯의 1인자가 숯을 구워내고 숯 찜질방(사진), 삼겹살 숯불구이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날로 인기가 더해지는 곳이다.

◆자작나무 그늘 아래 미술관

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사진작가인 원종호 관장이 20여 년 전부터 자작나무를 심고 가꾼 전원형 미술관이다. 불에 탈 때 '자작자작' 거리는 소리가 난다 해 이름 붙여진 우리나라 토종 나무인 자작나무를 배경으로 스튜디오 갤러리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장, 펜션 2개 동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작품 감상은 물론 책도 보고 차도 마시는 아늑한 휴게 공간으로 충분하다.

/황재용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 think you're mistaken about that. 의견과 생각 묻고 답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 can't wait until next week. I heard that it's going to be sunny.
B. 넌 더운 날씨가 왜 그렇게 좋아?
A. Because I can go swimming at the beach!
B. 개인적으로 나는 겨울 날씨가 더 좋더라.

정답 Why do you like hot weather so much? / Personally, I prefer winter weathe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생생영어팁

▶ frankly VS. honestly
솔직하게 vs. 진심으로

frank는 솔직한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인 honest와 비교했을 때 frank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기도 합니다. 다음의 문장을 볼까요?

ex. Frankly, I don't like him.
솔직히 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불편해할지도 모르는 말을 하려고 할 때 frank를 쓴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그에 비해서 honestly는 진심으로 ~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ex. I honestly love you.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간 전치사 at

▶ at은 시간, 때를 나타낼 때 '~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시각	at 11:30 11시 30분에
정오, 자정, 밤	at noon 정오에 at midnight 자정에 at night 밤에
특정 휴일	a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at Easter 부활절에

▶ 짧은 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usually get up at 5:30. 저는 주로 5시 30분에 일어나요.
2. Wake me up at 7. 7시에 나를 깨워줘.
3. What are you going to do at noon? 정오에 뭐 할 거예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Major industries in this district include food processing and aircraft ______.
(A) manufacturer (B) manufactures
(C) manufactured (D) manufacture

02 Linalla Media Group has indicated that growth in its new media revenues last year helped ______ a decrease in television advertising.
(A) offset (B) outplay
(C) input (D) overact

01 이 지역의 주요 산업에는 식품 가공업과 항공기 제조업이 포함된다.
해설 [illegible] food processing이 [illegible] aircraft와 함께 명사구를 이룰 수 있는 명사 (D) manufacture를 써야 한다.
어휘 district 행정 구역, 지구, 지역 food processing 식품 가공 aircraft 항공기 manufacture 제조, 생산 manufacturer 제조자, 제조사
정답 (D) manufacture

02 리날라 미디어 그룹은 작년에 새로운 미디어 분야의 수익이 성장해서 텔레비전 광고의 감소 상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설 [illegible] (A) offset [illegible]
어휘 revenue 수입 outplay 를 패배시키다 input 를 입력하다 overact 를 지나치게 행동하다
정답 (A) offset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숫자 읽기

Part 4에서 제시되는 표에는 시간, 날짜, 금액 등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 표현은 읽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금액

$ 표시 뒤에 오는 숫자 속 '.'는 달러(dollar)와 센트(cent)의 구분입니다. 복수형은 각각 dollars, cents로 읽습니다.

$1	one dollar	$8	eight dollars
$1.56	one dollar (and) fifty-six cents		

숫자 속 ','는 1천 단위를 구분합니다. 1천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하며, thousand는 단수형으로만 읽습니다.

$1,000	one thousand dollars
$10,000	ten thousand dollars
$100,000	one hundred thousand dollars
$1,000,000	one million dollars
$1,000,000,000	one billion dollars
$1,525	one thousand five hundred twenty-five dollars
$2,010	two thousand ten dollars

류현진이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 역투하고 있다 /AP뉴시스

2전3기 류 14승 꽂다

SF전 7이닝 6K 1실점… 다저스 역대 신인 다승 2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류현진(26·LA 다저스·사진)이 2전 3기로 올 시즌 14승(7패)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2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뽑아내며 4피안타 1점을 기록한 뒤 2-1로 앞선 8회 브라이언 윌슨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디저스는 6회 1-1 동점에서 터진 핫 캠프의 좌중간 솔로홈런으로 2-1 승리를 거뒀다.

시즌 22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을 3.03에서 2.97로 낮췄고, 탈삼진 수도 정확히 150개를 채웠다. 또 7회 우중간 안타로 시즌 안타 수를 12개로 늘렸다.

이날 류현진은 특유의 공격적인 직구와 위력적인 체인지업을 앞세워 치굿지굿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1회 징크스'에서 벗어났다. 1회 첫 타자 앙헬 파간에게 빗맞은 유격수 내야 안타를 내줬지만 후속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4회까지 호투를 이어가던 류현진은 1-0으로 앞선 5회 1사 후 상대팀 토니 아브레우에게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해 방문경기 첫 무실점 목표 달성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1979년 릭 서클리프(17승)에 이어 2002년 이시이 가즈히사와 함께 팀 내 역대 신인투수 다승 공동 2위에 오른 류현진은 경기가 끝난 뒤 "1주일 푹 쉬고 불펜 피칭을 한 게 구종과 제구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며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 포스트시즌에서도 이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와 포스트시즌 제3선발 기용 여부에 대해 "후반기 들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문제(포스트시즌 선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류현진은 30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15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추신수 2경기 멀티히트

추신수(왼쪽)가 1회말 2루타자 라이언 러드윅의 좌전안타 때 홈으로 파고들었지만 아웃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기록의 사나이'로 우뚝 선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2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5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 5회 밀어친 올 시즌 두 번째 3루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전날 3안타에 이어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자랑한 추신수는 타율을 0.285에서 0.287로 끌어올렸다.

팀은 2-4로 졌다.

한편 임창용(37·시카고 컵스)은 시즌 다섯 번째 등판인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1-4로 뒤진 5회초 3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⅔이닝 동안 타자 7명을 상대로 삼진 2개를 잡았지만 제구력 난조로 2루타를 포함해 안타 2개와 볼넷 3개 등을 내주고 2실점했다. 벼리그 데뷔 후 최다 자책점으로 팀은 2-8로 패했다. /조성준기자

손흥민 컵대회 시즌 3호골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이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컵 대회에서 올 시즌 3호 골을 신고하며 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25일 독일 빌레펠트의 쉬코 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 DFB 포칼 2라운드(32강) 분데스리가 2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17분 결승골을 넣었다.

볼 다투다 팬티 벗겨질라 애스턴 빌라의 니콜라스 헬레니어스(위)가 25일 토트넘과의 캐피털 원 컵(리그컵)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안 베르통헨(아래)의 '나쁜 손' 에 의해 바지가 벗겨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AFP 연합뉴스

서울, 에스테그랄 2-0 완파

프로축구 FC서울이 아시아 정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서울은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이란의 강호 에스테그랄을 2-0으로 물리쳤다. 국가대표 날개 공격수 고요한의 맹활약이 빛났다. 전반 31분 고요한이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린 것을 몰리나가 헤딩슛으로 연결했고, 골키퍼가 막아낸 것을 데얀이 재차 머리로 밀어 넣었다. 고요한은 후반 2분에는 직접 골을 터뜨렸다.

서울은 이날 완승으로 다음 달 3일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원정 2차전에서 비기거나 한 골 차로 져도 결승에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미국명기자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25일)

서울	2	0	에스테그랄

8연승 삼성…KS직행 눈앞

두산 PS진출 확정…SK, 7년 만에 PS 좌절

삼성 라이온즈가 대역전극을 펼치며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삼성은 25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8회 대거 7점을 뽑으며 SK에 7-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8연승을 질주한 삼성은 최하위 한화 이글스에 덜미를 잡힌 2위 LG 트윈스와 승차를 두 게임으로 벌리고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다. 한편 SK는 이날 패배로 7년 만에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했다.

KIA는 광주구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롯데를 7-1로 꺾고 최근 6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롯데의 패배로 4위 두산은 이날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포스트시즌 진출이 결정됐다.

최하위 한화 이글스는 대전 홈경기에서 갈 길 바쁜 LG 트윈스를 8-1로 잡았다. /이국명기자 kmlee@

프로야구 전적 (25일)

■ 목동

NC	000	000	001	1
넥센	000	000	000	0

■ 문학

삼성	000	000	070	7
SK	300	000	000	3

■ 대전

LG	000	000	010	1
한화	020	001	31X	8

■ 광주

롯데	000	001	000	1
KIA	000	023	02X	7

온라인 도박 사업은 2002년 미국에서 불법화되자 미국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중동 같은 해외 지역으로 발빠르게 옮겨갔다. 현재는 연간 매출 350억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연간 매출 60억 달러인 라스베이거스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뇌물 상납을 비롯한 부정부패가 판친다. 총만 안 들었을 뿐, 서부시대가 따로 없다.
영화 〈히든카드〉는 해외 온라인 도박 사업의 실상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www.metro.co.uk/RunnerRunner 에서 더 많은 정보와 함께 출연진, 법조계와 도박업계 관계자들, 실제 고수들의 특별 영상을 제공한다.
히든카드

야망 유혹 배신
저스틴 팀버레이크
젬마 아터튼
AND 벤 애플렉
히든카드
오늘, 목숨을 건 베팅이 시작된다!
www.metroseoul.co.kr www.hiddencard2013.co.kr